

고흥군 '군민소득 3000만원 시대' 본격화

민선 7기, 2022년까지 1인당 GRDP 3000만원 돌파 총력 혁신적인 군민 소득 향상 위해 71개 시책에 7300억원 투입

고흥군이 군민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일 '군민소득 3000시대 종합계획'을 본격 시행한다.

고흥군에 따르면 군민 소득 3000만원 시대는 민선 7기 미래비전 1·3·0플랜의 중요한 한축으로 2016년 기준 군민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2020만원을 2022년까지 3000만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프로젝트이다.

군민 소득 3000시대 종합계획은 1차 산업 위주인 고흥의 산업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2, 3차산업까지 소득을 높이는 방안이 주안점을 뒀다.

모든 군민이 고르게 잘사는 고흥을 만들기 위해 5대 전략 12개 과제 71개 시책으로 짜임새 있게 마련했다. 7300억 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다.

첫 번째 전략인 농수축산업 강화는 소득 높은 농림업, 경쟁력 있는 해양수산, 농수축산업 마케팅 강화 등 3개 과제가 마련됐다.

군은 ▲고소득 과수 품종갱신 및 육성 ▲양념채소 소득창출 기반 구축 ▲고효율한 우 품질 고급화 추진 ▲친환경 임산물 고 소득 창출 ▲가공·유통으로 식품산업 육성 ▲유망품종 양식기반 확충 ▲해조류 양식

산업 경쟁력 강화 ▲농수특산물 판로개척 및 수출 확대 등 소득개선 시책 30개를 준비했다.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와 소상공인 활성화, 건설분야 지원 강화가 과제로 제시됐다.

중소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창업기업 지원사업 홍보 강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 16개 시책이 마련됐다.

특히 관광 마케팅 총력, 관광객 맞이 역량 강화 등 과제의 경우 ▲고흥 관광마케팅 강화 ▲고흥 유자 석류축제 개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확대 ▲지역 관광사업체 육성 ▲각종 체육대회·전지훈련 유치로 소득 창출 등 9개 시책을 고안했다.

또 군민들의 근로소득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 창출에서는 ▲민선 7기 일자리 창출

시책 ▲귀향 귀촌 유치마을 소득 증가 ▲고흥 시니어클럽 일자리 창출 등 10개 시책을 추진한다.

군민 소득 3000시대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할 군민소득 3000 추동력 확보 전략에서도 ▲군민 소득 3000 콘트론타워 수행 ▲소득증대 유형별 자치법규 정비 ▲주민 소득 창출형 주민참여예산제 등 6개 시책을 담았다.

송기근 고흥군수는 "대내외 경제 여건상 군민 소득 3000시대 실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군민 소득 증가는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앞당기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므로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지혜를 모아 종합계획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곡성멜론, 수도권 학생 식탁 오른다

군, 10월까지 8kg 들이 500박스 공급 협약

곡성 지역 특산품인 멜론이 수도권 학생들의 식탁에 오른다.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 멜론이 지난 6일 8kg 들이 250박스를 시작으로 경기도 등 수도권 학교급식에 본격 진출하게 됐다.

이번 수도권 급식시장 진출은 곡성멜론 농촌융복합 산업화사업단과 수도권 학교급식에 과일 공급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주)아나나스푸드와의 연계를 통해 추진됐다.

곡성군은 오는 10월 말까지 매주 8kg 기준 500박스의 곡성멜론을 아나나스푸드에 공급하기로 협약했다.

아나나스푸드는 서울, 수도권, 지방권 등 전국 초·중·고등학교 3500개소와 공공급식, 단체급식, 어린이집, 요양원 등에 조각과일을 제조 및 납품하고 있다.

군은 이번 컵 과일 및 조각 과일용 곡성멜론 납품을 통해 학교급식 시장의 수



요 확대와 생산농가 소득 증대에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 담당자는 "급식용 곡성 멜론의 첫 납품으로 수도권 학교급식이라는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게 됐다"며 밝혔다.

곡성군 관계자는 "납품업체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도민들에게 곡성 멜론의 맛을 알리고, 생산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고흥 남열해수욕장 서핑 최적지 각광

국가대표 선발전 이어 8월 전국서핑대회도 개최

고흥군 영남면에 자리한 남열해수욕장이 서핑경기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다.

고흥군에 따르면 남열해수욕장에서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서핑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렸다. <사진>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남자선수 16명과 여자선수 5명이 출전해 남자 3명, 여자 3명이 국가대표로 뽑혔다.

서핑은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과 2024년 파리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종목이다.

이번에 선발된 선수는 국가대표로 세계

서핑대회(ISA)와 올림픽에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남열해수욕장은 높은 파도와 바람 등 기상조건과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서퍼들이 기량을 발휘하기 좋은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오는 8월에는 전국서핑 동호회가 참가하는 전국서핑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고흥과 여수를 연결하는 연륙·연도교가 개통되면 고흥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보성군, 점검·방역 교육 양돈농가·외국인노동자 대상

보성군이 중국·동남아·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관내 양돈농가와 외국인노동자를 상대로 점검과 방역 교육에 나섰다.

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양돈 농가에 10여건의 축사 소독약과 면역증강제 등을 지원했으며, 농가 전담관 21명을 지정해 농장 출입구에 차단 방역을 위한 생석회 살포 및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 1회 이상 농가의 차단·방역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군은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사진>

앞서 군은 지난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대한 다국어 교육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발생국 여행 후 휴대용 축산물 반입금지 및 축산물 택배 반입금지 등을 교육했다.

교육에 참석한 톤라타(캄보디아)씨는 "캄보디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 고흥을 방문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차단 방역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울포활어잡기 페스티벌 상가 매출 2배로 '대박'

보성군이 5월 통합축제에서 처음 선보인 울포해변 활어잡기 페스티벌이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5월4일부터 매주 토요일 개최되는 활어잡기 페스티벌 행사장인 울포해수욕장에 주말이면 수천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활어잡기 페스티벌은 지난 5월 초 관광객들의 인기를 모으며 입소문을 뒀고, 연이은 대박행진은 보성군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실제 보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전면 주변 시설물들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평균 2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인근의 숙박업, 음식점, 편의점도 성수기 못지않은 손님으로 연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지리산 왕시루봉 기독교박물관 건립 추진

선교사유적지보존연합, 구례 등 기독교 인사들과 결의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 보존을 위해 힘쓰고 있는 (사)지리산기독교 선교사유적지보존연합(공동이사장인요한 소강석·이하 보존연합)이 유적지에 근대 사진자료와 선교사 유품을 전시할 기독교박물관 건립에 나선다.

보존연합은 최근 지리산권인 구례를 비롯해 광양, 곡성, 남원, 하동 지역 기독교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결의했다. <사진>

보존연합은 이번 간담회에서 구례군민의 염원인 구례관광 발전을 위해 사진 박물관과 유적지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선교유적지에 고종 황제가 하사한 부채를 비롯해 1890년대 조선인들의 삶

을 담은 사진들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는만큼 유적지 소재지인 구례에 사진박물관을 겸한 박물관을 건립하고 성지 순례코스도 지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리산 노고단과 왕시루봉에 남겨진 13채의 기독교선교유적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보전대상지 공모전에서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 부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오정희 보존연합 상임이사는 "구례군의 요청이 있다면 선교사들의 유품까지 기증할 의사가 있다"며 "개화기와 현대사를 뒤돌아볼 수 있는 국민들의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